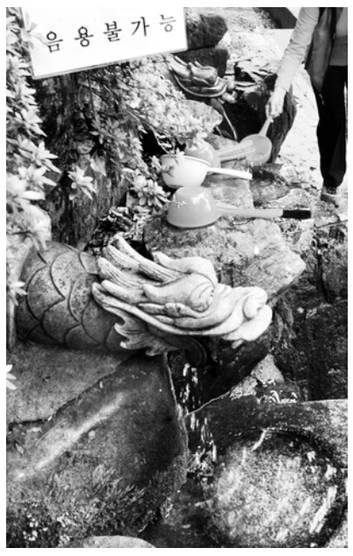
광주 약수터 수질 네 번 검사에 한 번꼴 부적합

10곳 201번 중 50차례 '미달'…무등산 너덜겅·중머리재 60%대

부실 관리 지적…지자체 "매주 한차례 이상 오염원 제거 등 청소"



앞으로 광주지역 약수터 물을 무턱대고 마셔선 안될 것 같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약수터 물이 네 번 검사하면 한 번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먹는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약수터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동구 증심사 관리소 등 지역 10개 약수터에 대해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201번 중 부적합이 50번으로 25%에 달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연간 11차례 수질을 검사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대장균군·일반세균·여시니아균·대장균·중금속 함유량 등 46개 항목을 점검했다.

보통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항목은 총대장균군으로, 100㎖당 하나도 없어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엔 각각 6차례씩 검사를 진행, 부적합 비율은 18%·31%였다.

무등산 너덜겅 약수터〈사진〉는 20번의 검사에서 12번(60.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 4번의 검사에선 모두 마실 수 없는 물로 나타났다.

중머리재 약수터는 18번 검사에서 12번(66.7%)이 부적합 결과가 나왔으며, 평두메도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8번(44.4%)이나 됐다.

북구 산장광장, 광산구 용진산 및 산정 약수터는 지난 2년간 각각 1번·3번·4번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올 들어 실시한 10번의 검사에선 모두 '음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지역 약수터 10개 중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수질검사에서 '적합'과 '부적합'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시와 각 구는 매주 한차례 이상 약수터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음용 부적합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약수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대부분의 약수가 지표수인데다, 지하수마저도 오염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약수터 관리는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중지 후 주변 오염물 제거 뒤 사용하며, 이어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금지 후 '이용불가' 경고문을 부착한다. 이후 1년간 부적합이 네 차례 이상 이어지면 약수터를 폐쇄하게 돼 있다. 광주지역 약수터는 2012년 14곳에서 봉황대·꼬막재·늦재·화산부락 약수터가 폐쇄된 후 현재 10곳만 사용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손톱 밑 가시' 인증제 대대적 정비

정부 규제개혁 발표

36개 폐지…77개 개선

직장인, 대학 수업일수 완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제품을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관련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와 관련해 서로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업일수나 수업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위치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道, 청년 리더 토크 콘서트

창업·농업 종사자 등 참여

전남도가 지난 6일 도청 이전 10년을 기념해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창업 및 가업계승 사업가, 귀농·귀촌 주민,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청년 등 80여명을 초청해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청년이 머무는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과 함께하는 전남' 등으로 섹션을 구분해 청년과 관련된 전남도정의 정책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건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인재 채용,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물 판로 개척,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질문하고 이낙연 전남지사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 참석한 장인선 생태마을공동체 선애마을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리더들과 한자리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지사는 "지난 9월에 개원한 '해남공공산후조리원'과 10월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 '정남진쎄네마'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내년 1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출발하면 농촌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여수와 광양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겼고, 빛가람에너지밸리센터도 착공해 청년들의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대만, 분단 66년만에 첫 정상회담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마주 잡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 7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949년 분단 이후 양안 지도자가 국가원수이자 정부 대표 자격으로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양측의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약 1시간 가량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이 "우리는 뼈와 살이 터져도 끊을 수 없는 형제이자 피로 이어진 가족(친척)"이라고 강조하자, 마 총통도 "양안 인민은 중화민족이며 염황의 자손"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지난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골자로 한 '92공식'(九二共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마 총통이 먼저 양안의 평화발전을 위해서는 '92공식'을 견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적대상태의 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처리 및 교류확대 ▲공동 중화문화 진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92공식' 원칙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면서 "대만 독립세력은 양안의 평화발전을 저해하고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측은 양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데에도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아·태 스카우트 총회 폐막…2018년 마닐라서 만나요

정의화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총회가 9일 광주 김대중컨베션센터에서 열린 폐회식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지난 3일 개막한 총회에는 43개국 500여명이 참가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디자인 비엔날레·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등을 통해 광주 곳곳을 체험했다.

주요 결정 사항이었던 2018년 아·태 총회 개최지로는 필리핀 마닐라가, 2021년 아·태 잼버리 개최지로는 방글라데시가 선정됐다. 한국(대구)은 2021년 아·태 잼버리 유치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한국을 찾은 아·태 지역 참가자들에게 광주와 광주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참가자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득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태 스카우트 총회는 지난 3년간 스카우트 사업보고, 정책결정, 이사선출, 차기 아·태 지역 행사 개최지 선정 등 주요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의결 기구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명예총재로 활동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총회에서 아·태 지역 최고 공로장을 수상했다. 정의장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대 설립 이화성 전 성인학원 이사장 별세

호남대 설립자인 이화성 전 성인학원 이사장이 6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7세.

1939년 보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1981년)하고 대만 중국문화대에서 명예 철학박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978년 호남대학교를 설립,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회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동탑산업훈장(1993년), 국민훈장 동백장(2003년)을 수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986년 향토 백화점인 가든백화점을 창립했으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할인점 이프유를 운영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박상학 ㈜청전정보 사장과 박상건 ㈜청전 사장, 박상철 호남대학교 부총장, 박경희씨 등 3남 1녀가 있다. 빈소는 호남대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10시. 062-940-5851. /김지을기자 dok2000@

부 고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 청전(靑田)이화성박사님께서 2015년 11월 6일 오전 7시 15분 향년 77세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호남대학교葬으로 영결식을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영결식 : 2015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호남대학교 중앙운동장

자녀 박상학 박경희 박상건 박상철
자부 정순희 박진희
사위 서강석
손 박선하 박창훈 박성원 박성민 박성준 박호준 박희준 서주원 서재원

장례위원장 장병완

장례위원 강기정 고재철 권은희 김경천 김동철 김양균 김용배 김용화 김장환 김종남 김주원 김중채 김포천 김필식 김화중 김혁종 김홍균 나무석 남종성 노성기 노영상 문두흠 문승현 박순옥 박용훈 박종구 박주선 박진성 박현규 박혜자 박홍석 방철호 부구욱 서재홍 송영복 염홍섭 오인균 유희열 윤정식 윤형섭 이구학 이 근 이대순 이상호 이선재 이승훈 이용부 이용훈 이윤자 이재술 이정선 이정재 이한승 이현청 이호재 임내현 장만채 장명선 장휘국 정갑주 정규남 정윤순 정인채 정진우 조성수 조영표 지병문 채영남 천정배 최민선 최상준 최수태 최영관 최인기 최 일 김동호 김민규 강상원 고점례 고정주 공동영 김갑수 김경진 김규옥 김동권 김동찬 김선주 김세환 김민종 김백수 김보현 김복호 김상곤 김상훈 김선남 김선미 김선옥 김이은 김인기 김영남 김영순 김옥자 김용옥 김용우 김용집 김용하 김용한 김유수 남정규 노정규 김점기 김정매 김한식 김형배 김후진 김훈중 나도팔 나병대 남광인 문태환 문태휴 노희용 류수택 류인구 류재선 리영숙 리종기 마광민 맹인환 문상필 박승주 박옥식 박용구 박용화 박종광 박종균 박춘수 반재신 방충헌 배야섭 배영모 배진하 백남선 백종환 변남주 변지유 서금자 서미정 서봉한 선영식 설경희 소재섭 손동선 손태현 송광운 송정용 신성수 심상봉 심재섭 심철의 심판구 안기영 안명수 안영로 안행강 양일옥 양회창 염경열 염광호 오광교 오병교 우제길 유방희 유정심 유태오 유학문 유혜량 윤관운 윤귀환 윤세관 윤여훈 윤예종 윤정민 윤풍식 이금채 이기승 이동호 이병석 이상동 이선순 이성출 이연득 이영순 이옥식 이원재 이은방 이은열 이정현 이정현 이준형 이창재 이창호 이탁우 이해민 이홍재 임순애 임우진 임이엽 임일남 임종대 임 택 임현모 임화춘 장상근 장영희 전진숙 정경남 정만식 정병권 정병채 정성창 정순애 정영삼 정영준 정정희 정진아 정현성 조기주 조기춘 조병현 조상열 조상현 조세철 조승유 조오섭 조재태 조희채 주경님 주영화 진충섭 차경섭 천형욱 최경채 최기영 최기채 최무송 최병식 최선희 최순이 최양님 최영종 최영호 하옥현 하주아 한희원 허부경 황경아 황영성 황현택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개별부고 생략)

※연락처 : 호남대학교 총무과 062-940-5851